티타늄에서 난소암 치료물질 개발!

리즈대학 맥고원 박사, 혈액 속에서 안정적 … 내성 강한 암에도 효과

비행기 기체의 재료로 쓰이는 금속인 티타늄으로부터 암 중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난소암 치료제가 개발됐다.

영국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영국 리즈대학 패트릭 맥고원 박사에 의해 개발된 난소암 치료물질이 시험관 실험 결과 난소암을 포함한 각종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래식 방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내성이 강한 암세포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맥고원 박사는 물에 녹고 물 혹은 혈액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함으로써 금속을 질병 치료제로 이용할 때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현재까지의 연구와 실험은 초기단계이지만 초기실험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며, 리즈대학에서 이 물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맥고원 박사는 현재 이 물질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암세포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규명되면 이 물질의 항암효과를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난소암은 진단이 어려워 진단시기가 늦고 환자의 4분의 3이 치료 중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0%도 안된다.

영국에서는 난소암이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7000명이 난소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3/11>